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

김 혜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박 희 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

柚井孝子 (日本 お茶の水女子大學 教授)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관하여 남녀별로 비교 검토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자료는 Witt와 연구자가 1988년에 사용하였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1998년 11월~1999년 5월에 한국의 서울시내 및 근교 대학과 일본의 동경도 근교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312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퍼센트, χ^2 -test 및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남자대학생의 결혼관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남자대학생이 좀더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한일 남자대학생 모두 80% 이상 자신이 연애결혼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본 남자대학생이 한국 남자대학생 보다 연애결혼을 더 선호했다. 한편, 결혼적령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남자대학생이 30대 전반, 일본 남자대학생이 20대 후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한일 여자대학생의 결혼관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80%를 초과하였는데 일본 여자대학생이 좀더 유의하게 높았다. 자신의 결혼은 연애결혼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일 모두 7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그 비율도 역시 일본 여자대학생 쪽이 더 높았다. 그러나 중매결혼에 대하여는 한국 여자대학생이 일본 여자대학생에 비하여 희망자가 더 많았다. 일본 여자대학생이 맞선결혼의 선호하는 경우는 연애결혼에 자신이 없다 같은 소극적인 이유를 들었으나 한국 여자대학생은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한국 여자대학생은 유교윤리에 기초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자 대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한일 여자대학생의 경우 결혼적령기에 대하여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양국 남녀대학생 모두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성격·인품, 애정, 건강을 꼽았으며,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 현실성, 부모와의 동거, 전통성, 내면성 이라는 4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 여자대학생의 경우 배우자선택의 조건에서 한일 남자대학생, 일본 여자대학생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조건을 걸고 있고, 학력, 수입, 집안, 배우자의 장래성 등 결혼에 따른 상성이동에의 기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여자대학생은 한국의 남자대학생 및 일본의 대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배우자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